

PRESS RELEASE

한국애브비, 2019 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서울, 2019년 9월 26일 –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인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가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1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애브비는 지난 25일 웨라톤디큐브시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해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중소기업의 HRD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총 1,089개(공공부문 470개, 민간부문 619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공공부문은 교육부,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시행 중이다.

한국애브비는 글로벌 제약사 중 유일하게 2019년 신규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인증에서 한국애브비는 기업과 개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인재 육성 철학에 따른 인적자원 관리와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능력 중심 인재 선발과 관리 및 양성, 성과 평가 및 행동 양식 평가, 교육 수립에 있어 구성원의 수요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애브비는 '혁신적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신뢰받는 선도적 바이오 제약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 문화 및 명성 강화를 위한 세부 목표와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인사부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서들이 소통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특히, 이번 인증에서는 직원관리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핵심 인재 관리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과 행동의 속성을 구체화한 '애브비 웨이(Abbvie Way)'에 기반한 능력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결원 발생 시 내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해 경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채용 시에도 다면적 평가를 통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이외에도 직원 역량 개발과 적절한 성과 보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 중이며, 특히 직원 교육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와 니즈를 조사, 분석하고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는 "한국애브비는 기업과 직원의 동반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해 관리하고 직원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한국애브비의 체계적인 인재 관리 프로세스와 직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캡션] 한국애브비는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1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애브비에 대하여

애브비는 연구와 개발 기반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혁신 치료제 개발에 헌신한다. 당사의 미션은 전문성, 헌신적인 직원들, 혁신을 향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통해 네 개의 중요 치료 영역인 면역학, 종양학, 바이러스학, 신경과학 분야에 걸쳐 치료법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애브비의 직원들은 75 개국 이상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 당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bbvie.com 방문, 트위터 계정 @abbvienews 팔로우,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강소영)는 130 명의 직원이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세 정보는 www.abbvi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